

# 참군인의 표상 부사관 42명 '전쟁영웅상' 영예



육군부사관학교가 17일 개최한 '2026년 전쟁영웅상 시상식' 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 육군부사관학교, 참모총장 표창 수여 제근상·백재덕상 등 3개 분야 나눠 "전투력 발휘 중추 역할 완벽 수행"

육군 전후방 각지에서 임무를 완수하며 '전투력 발휘의 중추'로 활약 중인 정예 부사관을 격려하고 70여 년 전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나섰던 선배 전우들의 군인정신을 기리는 장이 열렸다.

육군부사관학교는 17일 임국기(소장)

교장 주관으로 '2026년 전쟁영웅상 시상식'을 했다. 시상식은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부사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야전부대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임무를 수행해 온 모범 부사관을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전국 곳곳에서 경계작전과 교육훈련 등에 매진해 온 육군 각급 부대 부사관 42명이 이날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았다. 각 분야의 상 이름은 육군 대표 부사관 전쟁영웅의 이름을 딴 △육탄10용사상 △제근상 △백재덕상으로 정해 의미를 더했다.

백재덕상은 6·25전쟁 중이던 1953년 5월 셋별고지 야간 매복조임무 수행 중 분대급 병력으로 백병전을 벌여 적 중대급 병력의 기습을 격퇴하고 고지를 사수한 백재덕 이등상사의 용기를 기리는 상이다. 특수전사령부 천마부대 이정권 원사 등 장병들 가까이서 소통·헌신한 행정보급관 14명이 수상자가 됐다.

제근상은 6·25전쟁 초기 경북 포항 형산강 도하작전에서 분대원들을 이끌고 적 기관총진지를 파괴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산화한 연

제근 이등상사를 기리는 상이다. 60보병사단 이동준 상사 등 수십 년간 후배들의 든든한 이정표가 돼 준 14명의 장기근속 모범 부사관이 수상했다. 육군5군단 특공연대 홍성현 중사 등 14명은 육탄10용사상을 받았다.

임 교장은 "오늘 수상한 42명의 부사관은 선배 영웅들의 군인정신을 행동으로 증명한 참군인의 표상"이라며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전투력 발휘의 중추 역할을 하는 모든 부사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 적 도발 맞서 신속한 화력 운용능력 검증

### 육군5보병사단 사자여단 포병대대 창설 후 차륜형 자주포 첫 실사격

육군5보병사단 사자여단 포병대대가 창설 후 첫 포탄 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대대는 16일 경기 연천군 부흥동훈련장에서 K105A1 차륜형 자주포 6문이 참가한 사격훈련을 했다. 훈련은 적 도발 시 대응하는 작전대기포 임무 수행 전 사격 능력을 검증하고 화력 운용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표적 획득, 사격제원 산출, 사격명령 하달, 포탄 발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전적으로 이행했다. 이를 통해 전시 요구되는 신속하고 정밀한 화력투사 능력을 검증했다.

대대는 훈련 전 장비 점검과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했다.

안전통제관을 운영하고 사격장 안전조치도 사전에 마쳐 한 건의 사고 없이 훈련을 마무리했다.

임경민(중령) 대대장은 "부대 창설 후 첫 실사격훈련에서 장병들의 높은 임무수



육군5보병사단 사자여단 포병대대 K105A1 차륜형 자주포가 17일 포탄 사격훈련에서 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사진 제공=정영원 중사

행 능력을 검증했다"며 "앞으로도 실전적인 교육훈련으로 언제, 어디서나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화력 대비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

## 전우 마음 지키는 심리적 구급대원 역할 '톡톡'

### 육군2기갑여단 군중심 군중병 대상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

육군2기갑여단 군중심이 군중병들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개한 '심리적 응급처치(PFA) 교육'을 마무리했다.

여단 군중심은 "지난 4월 육군본부 군중심 산하 군중위기개입지원팀 출범에 맞춰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예하 부대 군중병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순회교육을 했

다"며 "변화하는 병영환경 속에서 군중병들의 직무 수행 역량을 향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심리적 응급처치는 재난, 사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치료 이전 단계에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불안·혼란을 완화하는 활동이다. '마음의 지혈활동'으로도 불린다.

그동안 심리적 응급처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위협요인에



육군2기갑여단 군중참모가 군중병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장병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다.

교육은 육군본부 군중심이 배포한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적 응급처치 기본 개

념, 위기 개입 프로세스 이해, 경청기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론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을 가정해 실습 위주 교육에 중점을 뒀다. 군중병들은 심리적 위기상황에 부딪친 전우를 발견했을 때 적용하는 '관찰하기·경청하기·연결하기' 3단계 행동요령을 반복 숙달하며 실제 상황 대응력을 높였다.

곽성민(소령) 군중참모는 "교육을 통해 군중병들이 전우의 마음을 지키는 심리적 구급대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투원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군중병과 구성원이 함께하며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